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71호_발행일 : 2004년 2월 22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기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2004신앙사경회

'영광' 이란 주제로 내일부터 열려

23-24일은 조현삼목사, 25일은 문동학목사가 강사로 대예배실에서

내일(23일) 저녁 7시 30분부터 대예배실에서 봄 신앙사경회가 개최된다. 이번 사경회는 "영광(Gloria)" 이라는 주제로 사흘간 열리며,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가 23일과 24일, 그리고 문동학 목사가 25일 설교하게 된다. 광염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과 파이프목회론,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등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여름 김해지역 긴급 구호 사역 때 우리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한 경험이 있다.

조현삼 목사는 광염교회를 개척하면서 유럽의 텅 빈 교회를 보며,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성당이나 예배당이 대부분 관광지로 전락한 모습을 보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후 건물이 아닌 사람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2020년까지 광염교회가 달성하려고 세운 10가지 비전은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000만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만가정 이상을 천국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등이다. 조현삼 목사의 목회철학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는 '사람' 이다. 전도, 선교, 구제, 장학 등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람을 키우는데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인 사역들을 보면, 먼저 국내전도인데, 1999년부터 지금까지 보길도, 흑산도, 강원 영동 등의 지역에서 매년 1-2차례씩 3박 4일에 걸친 전도집회를 가져서 매회 100-300명의 주민들이 결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에는 대만, 몽골, 인도,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다녀오기도 했다.

비전중심의 교회를 향한 교역자들의 다짐의 시간

비전공유의 시간이 된 교역자일일수련회

지난주 화요일(17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구 및 교육부서의 모든 교역자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친밀해지기 위한 일일 수련회를 가졌다. 장소는 남한산성에 있는 묵상의 집이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는 일의 범위와 성격, 대상과 시간이 달라 함께 모여 같은 교역자들끼리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와 전체 교역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올해 우리교회 비전인 사랑의 공동체 세우기와 예수 전염 시키는 교회, 그리고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와 주님의교회를 번식하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요즘 담임목사의 주일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한 복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모든 교역자들이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달려 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사경회를 중보기도사역으로 동참하길

이번 23일(월)-25일(수) 까지 신앙사경회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 저녁 6시 교회 지하 1층 영아부실에서 이번 신앙사경회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영적 부흥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헌실할 기도 동역자들을 초대한다. 문의는 자원봉사데스크로.

중등부의 사순절맞이

올해 사순절은 2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등부는 예수님의 수난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기위해 사순절 말씀달력을 코팅하여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며, 3월 14일에는 청소년 큐티 책인 '청소년 매일 성경' 을 통한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한다.

청년부수련회

2004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7일(금)에서 2월 29일(일)까지 열린다. 장소는 가평에 자리한 '약속의 섬' 이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부분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수련회는 청년 1,2부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다. 새로이 청년부로 올라오는 15기 고등부 학생도 참여한다. 이번 만남의 공통 주제는 '회복과 부흥' 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갖도록 기획하고 있으며 청년부 두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영성' 을 키우는 부흥의 시간을 위해 준비한다.

이동근

3월12일 구역개강

2004년 1학기 구역모임이 3월12일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구역장 첫모임이 3월5일 저녁7시에 중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리비아 사막에도 말씀의 강이 흘러넘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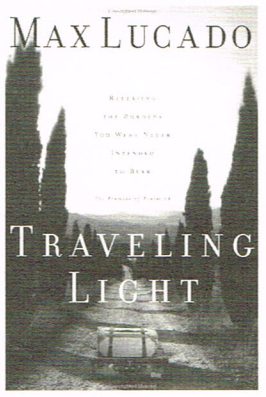
현대건설 해외근무 이재철집사

현대건설에 근무하며 해외근무만 15년이나 되는 이재철 집사(안상교집사의 남편)는 지난 연말에 휴가 나왔을 때, 구역식구(4-1, 구역장: 하태원)에게 현재 근무하는 리비아 현장에 우리교회 설교테이프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해왔다. 현재 리비아 사막의 건설현장에는 한국인과 제3세계인들 만 여명이 일하고 있다. 리비아 사막은 마치 사막과 같아서 이재철 집사는 "감옥과 같다. 풀이나 나무도 없는 감옥이다"고 말하며, 목회자도 없는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모여 설교테이프를 들으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이재철 집사는 우리 교회 설교테이프를 매월 보내주면 더 은혜롭고 잘 준비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며 도움을 요청해온 것이다. 이에 구역식구들이 테이프를 준비하여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다. 안상교 집사는 "리비아 사막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 하겠습니다"라며, 테이프 보내는 작은 일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2월의 좋은책 소개]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Traveling Light)

여행가방을 꾸릴 때 우리는 갈등한다. 여행지가 아침, 저녁으로는 추울지도 모르니 스웨터를 한 벌 더 넣어야 하지 않을까? 우기(雨期)가 가까우니 우산도 챙겨야지. 조깅화나 스위스 나이프도 필요할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준비시간이 길수록 짐 보따리는 늘어난다. 몇 번이나 스스로 반문해 보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다시 돌아오고 만다. 결국 우리는 있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한 많은 짐을 챙겨서야 고달픈 여행길을 떠나게 된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걱정근심으로 가득 찬 여행가방, 불만보따리, 한쪽 어깨엔 권태의 더플백을 메고 다른 쪽엔 슬픔가방을 걸쳤다. 등에도 의심의 배낭과 외로움의 침낭, 교만의 트렁크 따위를 둘러메었다. 순식간에 공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인부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루를 마감할 무렵이면 파김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 책에서 시편 제23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어 우리가 이고 지고 가는 짐들에 적용시키고, 그 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그 말씀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짐들을 벗어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

저자의 핵심적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를 양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짐승이다. 그런데도 다윗은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였나? 자기가 양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더듬어 보던 다윗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방식임에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 힘으로는 안전한 초장을 찾아낼 재간도 없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바른 길로 이끌어 주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해 줄 목자가 필요한 것이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전혀 쉼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목자가 없으면 쉼도, 삶도 없다. 양 같은 우리가 할 일은 목자를 바라보는 일 하나뿐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23편의 말씀을 입안에 담고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김익수 집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벽기도의 시간

우리는 너무나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건과 만남, 일들에 의해 분주히 쫓기는 삶을 살아가기 쉽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시간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찾은 곳이 새벽예배의 장소이다.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한 절씩 목사님과 교독한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말씀을 듣는다. 6시가 되면, 불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조용히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한다.

> "새벽예배를 다녀온 날 하루의 삶은 다르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영향력 있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힘이 생김을 느낀다."

새벽 예배를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개인적이고 부드럽게, 그러나 섬세하게 말씀하신다. 또, 우리의 간구와 감사, 중보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성령님이 부드럽게 마음을 만지시는 이 시간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속삭이듯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한다. 또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세상을 향해 흘러 터지도록 한다. 새벽예배를 다녀온 날 하루의 삶은 다르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영향력 있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힘이 생김을 느낀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찰도, 하루의 긴장과 스트레스도 여유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다.

새벽미명에 제자들을 등지고 홀로 산으로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사건이나, 압박해오는 일들처럼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 오히려 조용히 속삭이시며, 인내심 있게 기다리신다. 우리의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드리며, 조금 더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며,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

청년부 임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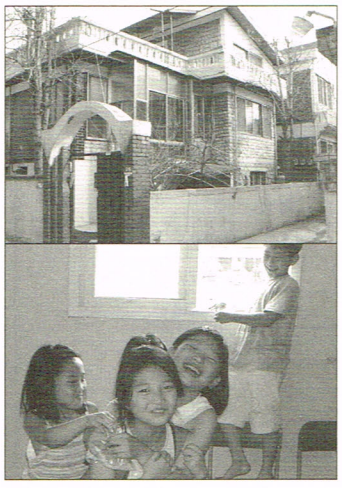
"Challengers" -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

교육위원회에서는 2004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 "Challengers"를 준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에게 주님의교회 교사자격을 수여합니다. (문의 : 최인영전도사 016-744-4663)

3/20(토)	3/21(주일)	3/27(토)	3/28(주일)
challenge 1 pm5-6:30	challenge 3 pm3:30-5	challenge 5 pm5-6:30	challenge 7 pm3:30-5
MEBIG 1: 이기둥 전도사(명성교회)	교회학교 진단과 도약 모색 김현령 전도사(주님의교회)	AWANA 1 이종국 목사(어와나코리아)	AWANA 3 이종국 목사(어와나코리아)
challenge 2 pm7-8:30	challenge 4 pm5:30-7	challenge 6 pm7-8:30	challenge 8 pm5:30-7
MEBIG 2 이기둥 전도사(명성교회)	교사 부흥회 1 홍민기 목사 (강남교회)	AWANA 2 이종국 목사 (어와나코리아)	교사 부흥회 2 홍민기 목사 (강남교회)

[국내선교위원회]

난곡 꿈나무 공부방이 마련한 작은 음악회



김경식 집사(5-1)가 극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공부방' 이 재계발로 헐리게 되고 이사갈 집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후원해 줄 것을 교회에 요청해 와서, 복지선교부원과 119사역팀원들이 현장을 나가보았다.

난곡 꿈나무 공부방은 결식 아동 및 극빈 아동 55명의 아이들이 모인 공부방이다.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린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였고, 맞벌이 가정, 결손가정, 실직 가정들의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중이다.

권사회, 교회 어머니로서의 역할 새롭게 다짐

2004년도 첫 권사월례회가 2월 17일(화) 11시 교회 5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 날 전교역자세미나 관계로 이동순 권사(회장)의 인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 안건으로는 우리 교회의 전화상담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독여성문인회가 매달 펴내는 주부편지 후원, 맹인 할머니를 섬기는 루디아 선교회를 후원하기로 의논 결정했다. 후원금 뿐 아니라 시간을 내어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도 하기로 했다.

권미희 권사의 인도로 기도회를 가졌는데 세계의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교회를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교회의 어머니 역할로서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움이 비쳐졌다. 기도회 끝에는 모든 회원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가족과 친지의 어려운 질병과 고통을, 혹은 이웃의 구원을, 혹은 감사와 섬김을 위해 기도했다. 앞으로도 기도회를 자주 갖고 더욱 더 권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할 것도 다짐하였다.

장혜경 권사

민지 엄마의 죽음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월요일(9일) 오후 2시경 이민지(11세)가 윤덕영 목사에게 급한 전화를 걸어왔다. 6년 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언니는 예전에 교통사고로 죽고, 엄마마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고인이 된 박미정씨는 3년 전에 치한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얼굴 대수술을 6차례나 받는 등 범인도 못 잡고, 얼굴로 망가져 비관한 지난 해 7월 사랑의 치과 변춘석 집사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지만 심한 우울증과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기독교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교회주관으로 장례를 부탁했고, 입관 때 참여한 경조위원들(위원장 계학용 장로, 부장 신정웅 집사)의 한결같은 건의로 교회는 장례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장례를 마친 친척들은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혼자가 된 딸 민지는 김제에 홀로 있는 친할머니댁으로 가서 김제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 계신 이모의 회심소식에 기뻐

샬롬찬양대 김삼화 자매 간증

4년 전 중국에서 유학 온 김삼화 자매(샬롬 찬양대 봉사)에게 2월초에 기쁜소식이 날아왔다. 예수를 믿지 않던 이모가 큰 체험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된 기쁨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10장이 넘는 간증문을 보내온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싸우기도 많이 하던 이모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다니 놀랍고 기뻐요"

김삼화 자매 자신도 어릴 때부터 무신론의 교육을 받아왔고, 중국의 교육공무원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게 되었고, "왜 교회에 다니는지 정말 알고 싶다"던 자매가 교회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모의 회심소식은 그녀에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싸우기도 많이 하던 이모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다니 놀랍고 기뻐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드린다는 그녀는 어머니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고백했다.

Sunday School News

[청년부 새내기 맞이]

새내기 15기 대대적인 환영식

지난주일(15일)에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된 새내기들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4부 예배 시간에 담임목사가 직접 이들을 회중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모두가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예배 후 해당되는 청년1부 모임에서 다시 한 번 청년들이 새롭게 한 식구가 된 후배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청년부에 등록한 이들은 청년부에서 이제 15기가 되고 앞으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사회로 진출하거나 재수를 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청년부의 회원이 된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청년이 된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줄 것을 다짐했다.

청년들의 봉사활동은 계속된다

지난주일(15일) 4부 예배를 마친 후 청년 2부는 송파구에 위치한 무지개 홈 스쿨과 루디아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무지개 홈 스쿨은 정신지체 아동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청년들은 매달 셋째 주일에 이 곳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진다. 루디아의 집은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노인 분들이 계신 곳으로 청년들이 매달 이 곳 역시 방문하여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함께하고 돌아온다. 청년부는 작년부터 이 두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제 이 곳은 청년부만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사랑의 나눔의 현장이 될 것이다.

「말씀찾아 삼만리」 소년부의 겨울나기

소년부 겨울수련회가 지난 20일(금)~21일(토)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보물섬의 비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예배와 조별모임 및 성경공부와 팀웍을 다지는 보물섬 놀이마당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내용으로 꾸며졌다.

김보선 전도사와 김승기 집사(소년부 부장)를 비롯한 교사들이 단합해서 진행한 이번 행사의 이면에는 숨은 봉사와 기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깊이 배어 있었다. 이것이 꽁꽁 얼어붙은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인생의 보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 모집

작년 가을 많은 성도들의 사랑속에 시작된 유소년 축구클럽이 이제 제2기 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모집대상 :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첫모임 : 3월 7일(주일) 오후 1시 소예배실
훈련기간 : 2004. 3. 7 - 6. 27
(매 주일, 총 17주, 우천시 실내 교육)
오전 11시 - 12시 30분 (중등부),
오후 1시 30분 - 3시 (초등부)

강사진 : 이용수 집사(유소년축구클럽 부장 2002 한일 월드컵 기술위원장), 조남윤 성도(브라질 축구 아카데미 대표, FIFA AGENT), 신재흠 성도(주택은행, 안양LG 코치 역임) 外 세종대학교 체육과 학생들
회비 : 7만원 (인상된 회비 내역 : 추가된 3주 프로그램 1만원 + 보험료 1만원)
접수방법 :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비와 함께 제출. (지원자의 과다 초과경우 추첨을 할 수도 있다)

{교회소식}

1. 2004년도 교회요람 배부안내

교회요람이 2월29일(주일)에 안내데스크(1층로비)를 통해 배부됩니다. 구역장(권찰)은 구역세대수만큼 받아가셔서 구역원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2.발 마사지 교육 선착순 40명

발 마사지 교육이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4주간에 걸쳐서 1층 유년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40명 선착순으로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합니다.

3. 친교실 봉사자 모집

1층의 친교실을 주중에도 열어 차와 음악이 있는 아늑한 대화의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평일에 3-4시간씩 주1회 정도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4. 제30기 호스피스부 자원봉사교육 안내

임종에 가까운 말기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돌보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3월 18일(목)부터 5월 27일(목)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정동제일감리교회 사회교육관 지하1층 아펜젤라 홀(덕수궁 뒤)에서 실시됩니다.

죽음준비의 15가지 목표, 말기환자의 증상과 돌봄, 죽음이해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노인환자의 심리와 보살핌, 치매예방과 치매예방 돌보기 등을 주제로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2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강료는 7만원입니다 (문의: 김양자 권사, 017-250-0670)

5. 새가족 등록 및 정착 과정안내

주님의교회 새가족의 등록 및 정착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대에서 새가족 등록위원의 안내를 따라 등록카드를 기록한다.
2) 예배를 마치면 등록한 새가족을 (인도자도 함께) 새가족환영실로 인도한다.
3) 새가족환영실에서 교구담당 교역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교역자는 구역편성과 새가족 반, 바나바사역자연결, 새가족심방 등을 확인한다.
4) 새가족은 자신에게 연결된 바나바사역자를 통해 가까운 교우를 소개받고 자연스럽게 관계형성을 이루게 된다.
5) 주일2,3부예배 후에 있을 5주과정의 새가족 성경공부반에 참여한다.
6) 새가족이 가능한 때에 교구교역자의 심방을 받는다.
7) 바나바사역자와 구역장은 새가족을 구역모임으로 초청한다.
8) 2-3개월마다 열리는 새가족환영행사를 통해 주님의교회 가족됨을 함께 축하하고, 담임목사와의 만남과 더불어 후속 양육과정과 사역을 소개받는다.
9) 구역정착과 함께 200양육과정 혹은 사역에 참여한다.

6. 사경회 기간중 자모실 운영안내

신앙사경회 기간중 자모실과 탁아방이 운영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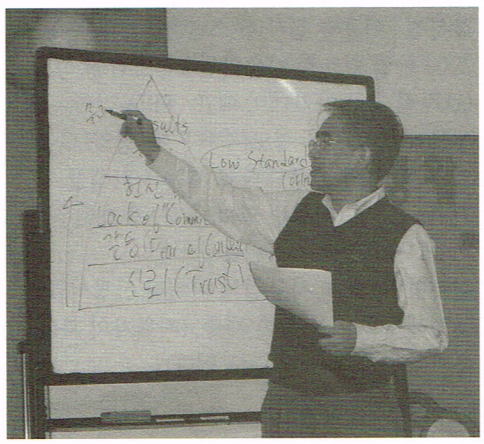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월 당회]

모새골 채플 건축 지원 및 장신대 석좌교수 지원을 결의



2004년 2월 당회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25분 경기도 광주 진새골 사랑의집에서 열렸다. 이번 당회는 당회원세미나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세미나 일정 중 첫 순서로 시작되었다. 장로11명과 목사8명 총19명의 당회원들이 모여 교회살림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번 당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인준하였고, 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좌 교수 1인을 연 5000만원으로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인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주방에 정수기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수요성경공부시 반주로 봉사하고 있는 최수현자매를 피아니스트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영수목사가 지원요청해 온 모새골 리뉴얼센터 채플 건축지원 요청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2002년 1월 19일 당회결의대로 건축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신학원 운영위원회 파송장로로 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윤좌원장로를, 중학교운영위원회에 최창섭장로를 임명하였고, 교회 홈페이지 담당자로 노수연집사를 웹마스터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정신여자중학교에서 요청해 온 성경교사 지원 요청에 대하여 고승제전도사를 정신여자중학교 성경교사로 파송하기로 하였다.